



마스터 플랜
전략기획본부 조성진 본부장

How to
리스크 관리 Build Together

이슈
2019 푸르지오 리뉴얼

공간에세이
조승연 작가의
프랑스 문화 공간에세이

대우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19 03+04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사보 편집실)

기획 · 디자인 (주)대통기획 02-2269-3613

인쇄 영은문화(주) 02-2274-9250

Build Together

- 04 **마스터 플랜**
전략기획본부 조성진 본부장
- 08 **매칭포인트**
나의 위험요소를 찾아라!
- 10 **How to**
리스크 관리 Build Together

COVER STORY



2019년 봄, 푸르지오가 리뉴얼을 거쳐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지난 1년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며 오늘의 꽃을 피워낸 대우건설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푸르지오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EVENT



2019년 독자이벤트 황금정대우를 찾아라!

발행되는 사보의 10권 안에는 황금정대우 카드가 숨어 있습니다. 카드의 주인공은 꼭 사진을 찍어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대우건설인>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2



14



Focus Daewoo

- 14 **이슈**
2019 푸르지오 리뉴얼
- 18 **이슈 인터뷰**
푸르지오 리뉴얼 히든 피플 스토리
- 22 **집중! 이 현장**
평택소사벌푸르지오현장
- 28 **글로벌 알쓸 TMI**
오만 TMI & 두콩 정유공장 PJ
- 30 **테크**
구조물 보수보강기술
- 34 **별별체험기**
북고 콘셉트 사진촬영 체험기
- 38 **온정배달**
해비타트 희망의 집고치기 봉사활동
- 40 **광고헤드림니다**
테니스 동호회 & 탁구 동호회

Wide View

- 42 **신인류문화보고서**
Are you 나나랜더?
- 44 **퇴근 후**
해가 저문 후 예술품과 함께 하는 저녁시간
- 46 **공간에세이**
조승연 작가의 프랑스 문화 공간에세이
- 48 **디지털 컨시어지**
디지털 비서와 함께 여행 준비하기
- 50 **라이프 컬처**
숨길 수 없는 태어난 순서 본능
- 52 **생활의 기술**
생활 속 조절의 기술
- 54 **DAEWOO E&C NEWS**
2019년 3+4월 대우건설 소식
- 58 **리더스 페이지**
독자의견
- 59 **생활예절**
대중교통 안 무개념족 수배합니다

38



우리의 액션플랜을 위한 콘트롤 타워가 되다

전략기획본부 조성진 본부장

3월의 어느 날. 전략기획본부의 조성진 본부장의 집무실을 노크했다. 창밖의 미세먼지를 바라보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걱정이라 말하는 그의 짧은 말 속에는 걸으론 다 표현하지 못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날씨가 따라 현장이 걱정되는 그는 뻗속까지 대우건설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접어들면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씩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전략기획본부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난 해 뉴 비전 Build Together를 선포한 것과 함께 우리의 목표가 2025년까지 매출 17조원, 영업이익 1.5조원 달성하여 Global Top 20 진입이라는 것, 모두 알고 있으시죠?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들이 비전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어려움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략기획본부 본연의 업무인 경영전략 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신설된 글로벌 마케팅실을 통해 마케팅역량을 강화하려고 해요. 단순히 수주를 통한 프로젝트 진행뿐만 아닌 우리 스스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개발사업, 북방사업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에요. 또한 법무실에서는 국내외 PJ 관련 법무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하려 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경영목표가 중장기 전략 이행 관리와 전사 컨트를 타워 역할 강화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우선 2019년 전 본부의 중장기전략 이행방안을 취합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이행방안이 기업가치제고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 MBO 평가를 위한 팀/현장 조직 목표에 본부의 중장기전략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직은 물론 전 직원의 2019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변화관리를 통해 각 본부의 중장기전략 이행에 조직원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택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을 때 FS(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 도입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제가 실무자 시절에는 컴퓨터 보급이 흔하지 않았습니니다. 본부 내 2~3개 정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투자금과 회수금의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얼리어답터적인 발상으로 지금의 엑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로터스, DBASE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맡은 사업을 관리하다보니 사업성 검토 건이 생기면 모두 제 몫이었죠. FS 도입에 기여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선배님들의 탄탄한 기본기가 있었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개선안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Master Plan



1986년 입사 이후 33여 년의 긴 직장생활을 지치지 않고 달려오셨는데요. 본부장님만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33년.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네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겪기도 했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떨어지는 걸까, 하며 푸념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땐 내가 이번에 그 당번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대우건설 후배들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푸념하는 시간은 짧게 하고 상황을 빨리 받아드려 해쳐나갈 방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해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며 우리 회사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신입사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꼭 신입사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새로운 일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원, 대리 등 젊은 직급들이 열심히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체감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잘못 되는 것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일이 바로 가게끔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저희 같은 선배들이 하는 일 아니까요. 일을 벌렸을 때 잘못 되면 책임은 저희가 질 테니 걱정 말고 일을 벌려 보세요.

책을 즐겨 읽으신다고 들었어요. 임직원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사춘기 시절부터 여느 아이들처럼 문학소년의 시절을 보냈고, 직장인이 되어서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온 것처럼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책은 권하지 않더라도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렇가요. 직원들이 인문서적을 많이 봤으면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문학적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3년을 함께 해온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평생을 함께한 회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빛나던 순간도 보고, 안타까운 순간도 함께 했는데요.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훌륭한 회사로 인정받고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 경계선 없이 많은 생각과 고민의 시간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 토론을 하며 발전적인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전략기획본부 임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항상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는 대우건설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본부가 현장에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면 우리 전략기획본부는 미래의 업무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팀 내, 본부 내 토론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새롭고 발전적인 곳에 아낌없는 시간투자를 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켜 우리 함께 회사를 이끄는 주역이 됩시다.

★ 전략기획본부 조성진 본부장 추천 바로 이 책!



정호승 시인의 시집 <수선화에게>
정호승 시인의 시를 좋아한다는 조성진 본부장. 그가 추천한 책은 <수선화에게>다.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한, 삶의 외로움과 깨달음이 맞물린 이 시선집은 새봄의 향기와 깊고 고요한 서정의 시세계를 동시에 선사한다.



<CEO를 신화로 만든 운명의 한 문장>
집행임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소개하는 것 또한 전략기획본부의 역할이다. 첫 번째 소개한 책이 바로 <CEO를 신화로 만든 운명의 한 문장>이다. CEO로서 치열한 삶을 산 사람들의 마음속 한 문장을 음미하다 보면 삶의 교배를 다잡을 수 있게 해준다.



<삼국지>
조성진 본부장이 3번은 읽었다는 바로 그 책, <삼국지>. 현재 나의 상황에 따라서 관점, 느낌이 달라져 늘 새로운 재미를 주는 책이라며 추천했다.

Matching Point

이것만은 주의! 나의 위험요소를 찾아라

조직은 결국 사람으로 돌아간다. 변화하는 환경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그것을 대처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조직에서 1차 위험관리 요소는 사람이다. 나의 성향에는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테스트를 통해 매칭해 알아본다.

Step 1. 위험 유형 자가테스트

그렇다 4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 그렇지 않다 0점

A

친구라도 틀린 것은 엄격하게 비판, 비난할 때가 있다. _____점
배신은 그게 누구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_____점
시간 약속에 상당히 엄격하다. _____점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말할 때가 자주 있다. _____점
의무나 세상의 규칙은 법이 아니어도 준수해야 한다. _____점

B

아이나 타인 돌보기를 좋아한다. _____점
부탁 받은 일은 시간상 어려워도 잘 거절하지 못한다. _____점
어떤 일이든 임기응변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_____점
상대방의 말에 영향을 받아 잘 공감한다. _____점
상대방의 작은 거짓말 정도는 용서한다. _____점

C

생각난 것은 바로 말한다. _____점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한다. _____점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태도에 나타난다. _____점
타인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같은 물건을 갖는 것이 싫다. _____점
흥에 겨워 도를 지나칠 때가 있다. _____점

D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지만 지나치게 두드린다. _____점
싫은 일이 있으면 입을 꼭 다물 때가 많다. _____점
다른 사람과 말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한다. _____점
소수파이기보다 다수파일 때가 안심이 된다. _____점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싸움은 가능한 피한다. _____점

Step 2. 테스트 유형 진단

A 점수 < B 점수

C 점수 > D 점수

A 점수 < B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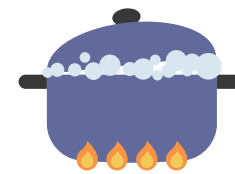
C 점수 ≤ D 점수

A 점수 ≥ B 점수

C 점수 > D 점수

A 점수 ≥ B 점수

C 점수 ≤ D 점수



끓는 냄비형

술선행 움직이는 주체성이 강하다. 높은 평가를 받아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반면 신중함이 부족하여 야무지게 마무리를 하지 못해 크게 실패할 때도 있다. 쉽게 달아오르는 만큼 쉽게 식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뒤치다꺼리를 떠맡길 때도 있다. 남을 잘 웃기며 주목받고 싶어 하는 편으로 이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보인다.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형

이 유형의 최대 강점은 협조성. 하지만 스스로 앞장서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술선행 어려운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과감성은 없다. 지나치게 안정 지향적인 성향이 있어 새로운 것이나 참신한 것을 두려워해 심할 경우 파벌을 만들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기 쉬우며 금방 타협하기 때문에 주체성 없고 보수적인 '안전제일주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폭발하는 팝콘형

주변 사람을 이끌어 가는 행동력이 특징. '꼭 해내겠다'는 신념이 강한 나머지 혼자만 지나치게 의욕이 넘쳐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면도 있다. 독선적이고 지배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위험성도 있다. 예절을 중시하고 인정이 넘치는 반면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해 사람을 내칠 때에는 주저함이 없다.



도덕책형

정의감이 넘치지만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형. 고집이 세고 완고해 자신의 생각에 집착한다. 일단 뭔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에 무척 배타적이 돼 자신의 껍질 안에 갇히는 일도 종종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규칙, 상식, 도덕을 강하게 추구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이 키워드만은 조심!

적당주의

우유부단

오만함

지나친 성실함

충동적

보수적

독선적

완고함

자기중심적

안정우선

융통성 제로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리스크 관리 Build Together



기업가치제고1팀 오민석 과장

저는 해외프로젝트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사업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수행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을 지원하
는 '프로젝트 수행혁신'이라는 기업가치제고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전사 중장기 전략중 하나인 '수행역량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회사의 질적 성
장에 일조하는 것이 업무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수행능력 강화를 통하여 정해진 공기와
원가 내에 프로젝트가 준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연성'인데요, 유연성이란 리스크를 마주하는 마인드라고 생
각합니다. 현업에서든 현장에서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리스크'는
얼마든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발생해서
는 안되는 '손실'로만 인식하고 '제거'하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
를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곧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배양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와 생활 속에서 가능하면 대안1, 대안2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베스트 안이라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트레이닝과 관련
책자 및 칼럼 등을 읽으며 생각의 틀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물론 유관팀 담당자 분들과 회사 선후배님들로부터
얻는 많은 의견과 조언은 생각의 유연성을 배양하는데 아주 큰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스크 관리 능력
의 배양으로 앞으로 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많은 '기회'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것이 저의 중장기 목표입니다.

우리 회사의 뉴 비전 Build Together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중 하나인 '리스크 관리'.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에서 만전을 다하고 있는 대우건설인 4명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기업가치제고2팀 민형석 과장

저의 업무는 국내, 해외 현장의 원가에서부터 공정, 기타 현안까지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리스크
등록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한다면
'리스크의 가감 없는 등록과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란 원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현장에서 판단
하여 모든 요소를 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리스크라고 판단되는 일부만 공개할 수 있죠. 현장에서 가장 잘 아
는 부분이니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야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의 기
회를 잃을 수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원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면 그 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추가적인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은 물론 이를 만
회할 수 있는 개선안도 함께 모색하려 합니다.
때문에 가감 없는 있는 그대로의 리스크를 공개하고, 그것을 함께 관리하는 리스크 공유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당
연히 저희 팀이나 사업본부에서도 현장에서 모든 내용을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
면 현장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원가 증가 요소를 발굴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에서 도출한 현장별 각 리스크의 발현 확률 및 신뢰성
을 바탕으로 원가 증가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현장과 소통, 보완하며 리스크 감지 강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
습니다.



국내PJ심의팀 이태희 과장

저는 국내사업 수주단계에서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관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찾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팀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안에 대해 규정된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 맞을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팀과의 소통 없이는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없어요. 업무도 다르다보니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 서로의 입장 이해를 위해서라도 소통이 중요할 수밖에요.

저희 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팀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심의상정 시 함께 검토합니다. 각 팀원들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의 힘이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습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온라인 수강을 듣기도 하고, 팀 내에서는 '서로배움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배움세미나는 이름 그대로 팀원들이 일일 강사로 나서 팀원들에게 자신이 선정한 주제 내용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팀원 외에 타 팀에서 강의를 해주시곤 하는데요. 덕분에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전문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회사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표화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객관화된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문제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팀과 긴밀한 소통 및 치열한 고민을 통해 2025년 글로벌 Top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PJ심의팀 조규태 대리

저의 업무는 우리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행 중 리스크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해외PJ심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제 업무에 있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Lessons Learned'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회사는 많은 해외사업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가 해외사업을 진행하며 경험했던 성공사례, 아쉬웠던 점 등은 큰 자산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에 적용하여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유형이나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찾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채널들을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관리방법이 정보수집과 분석이라면, 이 외에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팀 업무는 사업팀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사업팀은 그간의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죠. 저희는 배우는 자세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사업팀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리스크를 예측해 심의위원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은 회사의 전략과제 중 하나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분야임은 분명하지만 변수가 많은 사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관련 심의 담당자로서 사업팀을 도와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회사의 뉴 비전을 달성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2019 푸르지오 리뉴얼

Natural Nobility,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

푸르지오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고, 아파트 단지의 시설과 조경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누구보다 먼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통해 누리는 세련된 편안함. 푸르지오는 이를 추구하기 위해 또 한 번의 변화를 택했다.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

2003년 우리 회사는 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친환경 브랜드 ‘푸르지오’를 론칭했다. 이후 오랜 기간 공급 실적 1위를 기록하며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포함하여 무수한 수상 실적으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푸르지오의 프리미엄은 친환경에 국한되어왔다. 친환경은 이제 삶의 기본이 되었고, 더 큰 관점의 주거 환경을 생각해야했다. 그래서 자연(nature)보다 더 나아가 자연스러움(natural)을 추구하고자 했다. 특별한 주거 환경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 우러나올 수 있는 편안함. 바로 ‘본연’에서 그 답을 찾자 한 것이다. 푸르지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우리가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고민하고 제안한다.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일상을 아우르고, 깊숙이 파고든 세심한 주거 서비스와 더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매일의 일상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 올리는 것이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내가 본연의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에서 비로소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삶이 피어나는 것, 바로 푸르지오가 지향하고자하는 고객의 삶이다.



→ PRUGIO 2019 리뉴얼

푸르지오의 변화

푸르지오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주거 문화 공간을 표방하며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집이라는 주거 공간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로 브랜드 신뢰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다. 1994년 업계 최초 ‘그린 홈, 그린 아파트’의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3년에는 친환경 주거 철학을 집약한 푸르지오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발전을 거쳐 이제는 더 깊은 차원으로 아파트를 이야기하려 한다. 값비싼 제품을 칭하는 프리미엄이 아닌 여유, 행복 그리고 경험을 가꾸는 생활을 통해 프리미엄을 나타내고자 한다.



브리티시 그린

푸르지오의 친환경 철학이 반영되었지만 지나치게 친근했던 ‘그린’에서 본연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색상의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블랙’이다. 블랙은 고급스러움, 절제미, 중후함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럭셔리를 상징하는 색상이다. 기존 푸르지오의 그린 색상에 고급스러운 블랙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듯한 브리티시 그린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PRUG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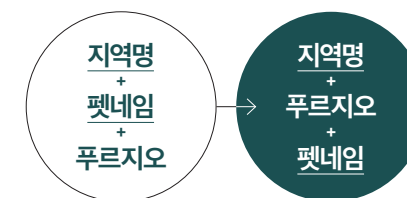
푸르지오 BI

푸르지오의 새로운 로고는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자연의 형상을 담았다. 단단하지만 바람에 자연스레 구부러진 풀잎에서, 기본기가 탄탄하지만 프리미엄을 더해 고급스러워진 푸르지오를 보여주고자 했다.



BI 캐릭터

푸르지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헤리티지인 ‘P tree’의 갈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와 지구, 대지의 단단함을 연상하게 하는 원형을 더한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는 푸르지오의 성격을 함축하며 BI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틀에 갇히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푸르지오를 나타낸다.



네이밍 명명체계

네이밍 또한 기존 명명체계와는 별도로 새로운 펫네임 표기 방식을 추가하여 푸르지오의 상위 버전으로 연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품질에 대한 푸르지오의 강력한 보증과 동시에 진화하는 브랜드의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푸르지오의 브랜드 철학

본연의 삶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푸르지오는 네 가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Be Unique] Design Premium

사용자화[스타일맞춤], 가변주택[생애맞춤], 최적배치[대지맞춤], 시대 요구 충족[시대맞춤] 맞춤형 주택 등

눈에 보이는 프리미엄 우리 각자의 본연에 다가가기 위해 푸르지오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알맞은 차별화된 설계 상품을 제공한다. 푸르지오는 언제나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래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갈 것이다.

[Be Gentle] Life Premium

웰컴키트, 인앤아웃 키즈월드, 라이프 프리미엄 존, 대신맨 서비스, 눈높이 푸르지오, 우리 아이 위치 안전 등

배려와 공경의 고품격 서비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푸르지오는 고객의 고귀한 삶, 우아한 일상을 위해 언제나 고객의 뒤에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배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Be Right] Green Premium

그리너리 라운지, 힐링포레스트, 테마가든, 에코 절수형 가전, 전기차 충전설비 등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서비스 미래의 쟁점은 친환경이다. 업계 최초로 친환경 철학을 도입한 푸르지오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빠르게 바뀌는 주거 환경을 위한 푸르지오의 철학이 담긴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더 올바른 푸르지오가 될 것이다.

[Be Smart] Smart Premium

IoT 월패드, 스마트 매직미러,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스템, 미세먼지 측정/경보 시스템, 지진감지 경보 시스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등

편리한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 일상생활에 지친 나를 위해,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 즐겁게 뛰어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푸르지오는 묵묵히, 또 똑똑하게 일한다.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푸르지오의 스마트 솔루션은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푸르지오가 제안하는 새로움



그리너리 라운지

그리너리 스튜디오

그리너리 라운지(Greenery Lounge)

푸르지오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공간이 우연하게 어우러지는 모습. 푸르지오는 그리너리 라운지를 통해 본연의 삶이 지나는 고귀한 생활을 제안한다. 기존 UZ센터의 가치를 높이고, 가족과 이웃, 자연과 단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세련된 커뮤니티 시설이다.

그리너리 스튜디오(Greenery Studio)

기존에 없던 푸르지오의 새로운 공간으로, 그리너리 라운지와 분리되어 별동으로 조성된 고즈넉한 중정이다. 로맨스 가든으로 구성된 조경과 카페, 성인들을 위한 열린 도서관을 통해 학습과 문화의 공간으로 포지셔닝 된다. 자녀들을 위한 학습시설을 넘어, 거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식 나눔의 공간으로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되는 시설이다.

오픈필드

커뮤니티 앞쪽으로 넓은 광장의 필드를 구성하여 마켓, 피크닉, 숲속 영화관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푸른도서관, 열린도서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의 세련된 북큐레이션과 멀티미디어 장치의 활용으로 더 고급스러워진 푸른도서관, 탁 트인 개방감 있는 세련된 인테리어로 어른들을 위한 서적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스테티 카페 열린도서관도 제안된다.

조경

모든 조경 요소들이 균형을 맞추며 하나로 어우러질 때, 자연은 더 돋보이고 풍부한 울림을 가지게 된다. 푸르지오는 순수한 조형 요소와 통일감 있는 소재로 자연을 더욱 매력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자연을 담은 소재를 사용하고, 자연의 방식을 따라 식재하여 자연과 삶의 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였다.

노력의 결실, 푸르지오를 선보이다

새롭게 론칭될 푸르지오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친 조사와 연구, 많은 고민 그리고 노력의 끝에 완성되었다. 오는 4월 1일, TV 광고를 시작으로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보여줄 푸르지오의 캠페인 광고를 QR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푸르지오 리뉴얼 히든 피플 스토리

푸르지오가 리뉴얼을 앞두고 회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뜨거운 열정을 쏟아낸 이들이 있다. 김종민 과장, 이지연 대리, 신현민 대리 그리고 윤지환 대리. 리뉴얼이라는 큰 짐을 짊어진 채 만난 이들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결국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4명의 대우건설인들을 만나 푸르지오 리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연 대리

윤지환 대리

신현민 대리

김종민 과장

안녕하세요. 푸르지오 리뉴얼과 관련하여 담당하신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종민 과장 기존 푸르지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임직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디자인하는 기획 업무를 담당한 김종민 과장입니다. 지금은 현장으로 이동하여 과천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지연 대리 리뉴얼된 푸르지오의 TV 광고 캠페인, 론칭행사 기획, 브랜드 영상 제작 등 대외 홍보와 푸르지오 Visual B.I(Brand Identity)를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팀 이지연 대리입니다.

신현민 대리 푸르지오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제고를 진행하는 상품개발팀 신현민 대리입니다. 브랜드 관련된 여러 유관팀들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쉽게 말해 브랜드의 기획팀이라고 보시면 되요.

윤지환 대리 주택건축기획팀 윤지환 대리입니다. 푸르지오 브랜드 리뉴얼 활동에 있어 다양한 유관팀에서 각자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서로 다른 색을 담게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색을 담을 수 있게 소통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기구인 브랜드 가치제고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 리뉴얼에 있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신현민 대리 이번 리뉴얼은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Natural Nobility(본연이 지니는 고귀함)라는 브랜드 철학을 새롭게 정의하고, 단지의 외관, 조경, 커뮤니티 등에 일관된 디자인을 정립하려 노력했어요. 리뉴얼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고객 입주 서비스, AS까지 모든 분야에서 서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게 신경 쓰고 있죠.

이지연 대리 친환경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던 푸르지오에 고급스러움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기존의 자산을 지키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즉 모든 요소들에서 새로운 철학인 Natural Nobility가 느껴지게 하기위해 이름만 빼고 모든 걸 다 바꾼 것 같아요.

“이번 리뉴얼은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Natural Nobility(본연이 지니는 고귀함)라는 브랜드 철학을 새롭게 정의하고, 단지의 외관, 조경, 커뮤니티 등에 일관된 디자인을 정립하려 노력했어요.”



신현민 대리

기본 좋은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윤지환 대리

수많은 산을 넘으며 진행된 브랜드 리뉴얼이었던 만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현장에 오니
새로운 관점으로
브랜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준공이 최대의 목표인
주택현장에서
브랜드 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싶어요.”

리뉴얼을 진행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가요?

윤지환 대리. 브랜드 업무의 특성상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당장 샘플을 만들 수 없는 주거상품의 특성상 실체가 없이 콘셉트만 가지고 모든 임직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도움을 주셔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지연 대리. 아직 실체가 없다보니 변화된 모습을 광고로 어떻게 담아낼지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Natural Nobility를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았어요. 먼저 푸르지오가 바뀌었다는 것을 임팩트있게 전달하고 그로인해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광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김종민 과장. 저도 많은 임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리뉴얼을 진행하기 전 8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중간 과정에 있어서도 60여명의 임직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을 묻고, 취합하고, 정리했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를 통해 저와 저의 선배 그리고 후배들이 평생 먹고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리뉴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지연 대리. 푸르지오는 경쟁사들에 비해 다소 늦은 2003년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최근 몇 년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업계 최고의 브랜드로 도약할거라 믿어요. 많은 임직원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는 새로운 푸르지오를 대중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선보이는 것이 저의 역할이자 목표예요.

신현민 대리. 이번 리뉴얼을 통해 푸르지오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단순 업무 성과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꾸준히 숨쉬며 발전해나가는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브랜드 선호도 1위라는 수치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가장 살기 좋은 집이 푸르지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종민 과장. 브랜드 리뉴얼의 기획부터 결과물 도출까지의 과정을 끝내고 현장으로 이동했는데요, 현장에오니 새로운 관점으로 브랜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준공이 최대의 목표인 주택현장에서 브랜드 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싶어요.

끝으로 새로운 푸르지오의 런칭을 앞두고 소감 한마디해주세요.

윤지환 대리. 리뉴얼된 푸르지오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외관 위주의 리뉴얼은 올해 준공단지에서도 일부 반영되었지만, 설계 단계부터 완전히 표현하는데는 3년은 걸린다고 봐야 해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유관부서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곧 브랜드 관련업무를 두고 탐내 파트를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담당자가 잘 운영하여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싶어요.

이지연 대리. 입사 후 4년간 브랜드 관리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그 후 한동안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번 푸르지오 리뉴얼을 기점으로 다시 브랜드 업무를 담당하게 됐죠. 업무를 떠나있을 동안 저도, 푸르지오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번 리뉴얼이 푸르지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현민 대리. 유관팀 담당자들과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고생했다” 또는 “앞으로의 푸르지오가 기대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많은 업무에 치여 힘들어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힘이 나는 거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고 다양한 안목과 통찰력을 키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지연 대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 끝에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푸르지오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과장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푸르지오가 회사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어
다함께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르지오의 새 기준을 세우다

평택소사벌푸르지오현장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건강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서는 아니다. 좋은 재료와 함께 정성을 가득 담았기 때문 아닐까? 아파트라고 이와 다를 것 없다.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깊은 고민의 시간과 노력이 맛있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완성시킨다. 지금 평택 소사벌의 ‘평택소사벌푸르지오현장’이 그렇다.

피 끓는 청춘들의 꺼지지 않는 에너지가 원동력

평택 남단에 위치한 소사벌의 비전동. 비전동의 첫 인상은 아담하고 조용한, 그리고 깨끗한 동네라는 것. 하지만 이제 평택소사벌푸르지오현장 준공으로 오랜 잠에서 깨어난다. 평택소사벌푸르지오현장은 지하1층~지상25층, 총 56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6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3월 19일 준공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발로 뛰며 공기를 1개월 단축하여 3월 1일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손정환 현장소장 말에 “그렇게 앞당겼으면 품질은?”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걱정은 불들어 매사라! 그 결과는 사전 점검일을 통해 드러났다. 앞으로 지낼 집인 만큼 그 어떤 때보다 매의 눈으로 살피는 것이 바로 입주예정자들이다. 그만큼 까다롭기가 보통이 아닌 입주예정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잘 지었네요. 다른 칭찬의 말이 더 필요할까. “그 말로 그동안 있었던 어렵고 힘든 일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라고 품질팀 김능현 대리가 말한다.





을 달리한 물결모양 패턴을 적용해 디자인적인 요소도 가미했습니다. 최소한의 색만 사용했기 때문에 동출입구의 주목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면에 루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어두웠던 지하주차장을 밝고 개방감 있는 분위기로 바꾸었죠.”

이는 상품개발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 디자인을 현장에 일부 선제 적용한 결과로, 앞으로 푸르지오의 기준이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입주예정자들의 반응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입맛대로 누리는 테마 가든

평택소사별푸르지오현장의 백미가 지하주차장 동출입구라해서 다른 포인트가 없다 생각한다면 절대적 오산이다. 101동 상부를 주목해보자. 101동은 평택 소사별 푸르지오의 랜드마크격으로, 꼭대기에 옥상체를 만들어 구조물을 형성하여 여기에 푸르지오 마크를 새겼다. 하늘 높이 당당히 솟아 있는 모습이 우리 회사의 자긍심은 물론 앞으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 입주민들의 프라이드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 설계는 기존안보다 크기를 훨씬 키운 것인데, 덕분에 입주자들의 만족 또한 함께 커졌다. 단지 조경도 빼놓고 가면 섭섭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현장 직원들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에요. 단순히 직원들이 젊은 것이 아니라 발로 뛰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폭발적인 사람들로 모였어요. 준공 수개월 전부터 전 직원들이 모든 세대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번 이상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품질에 공기 1개월 단축. 이를 이뤄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현장 직원들은 입을 모아 ‘젊은 피’라고 답했다.

“현장 직원들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에요. 단순히 직원들이 젊은 것이 아니라 발로 뛰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폭발적인 사람들로 모였어요. 준공 수개월 전부터 전 직원들이 모든 세대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번 이상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공무 담당 안수용 대리의 말처럼 현장의 작은 구석 하나 하나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평택소사별푸르지오현장 식구들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온 시간이 오늘의 열매를 맺었다. 손정환 현장소장은 “열정으로 피 끓는 현장직원들 덕분에 배운 것도 많고 자극도 받았습니다.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의 문화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함께 젊어지는 기분이랄까요?”라며 이야기를 덧붙였다.

스타트! 푸르지오 신 디자인

평택소사별푸르지오현장의 백미는 바로 지하주차장이다. 지하주차장 동출입구에 색채 신 디자인을 적용한 것. 기존의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보면 구역을 나누기 위해 바닥부터 벽면, 기둥까지 각각의 색으로 구분했다. 빠른 인지를 위해 색을 입혔지만 정작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이 들어서면 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고, 색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진짜 니즈를 반영하기로 했다.

“주차장 전체 색은 흰색으로 하고 각 동출입구마다 포인트 컬러를 사용했어요. 101·102동에는 버건디, 103·104동에는 다크블루, 105·106동에는 퍼플. 각 색마다 톤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친수공간 아쿠아가든은 펠리컨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특히 아쿠아가든의 바닥은 미러폰트가 설치되어 있어 밤에 조명이 켜지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플라워가든에는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다. 테마 가든 중 가장 이색적인 것은 바로 키친가든. 가족,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나눌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따뜻한 봄이 오면 상추,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를 심으며 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햇살 좋은 날 야외에서 커피 한 잔 하고 싶게 만드는 전망데크도 놓치고 가면 안 될 구성요소다. 단지 옆 통복천을 조망할 수 있는 배 모양의 휴게공간이다.

3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푸르지오의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디자인 되는 디테일한 부분들, 구석구석에 적용되었던 요소들 등 푸르지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선보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손정환 현장소장. 그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있어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이제 그 끝이 마무리 되었다. ‘현장’은 마무리 되었지만 ‘평택 소사별 푸르지오’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다져온 시간과 노력이 입주자들에게 있어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군가에게 있어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이제 그 끝이 마무리 되었다.
‘현장’은 마무리 되었지만
‘평택 소사별 푸르지오’는
이제 시작이다.

평택소사별푸르지오현장의 희망메시지

골조공사 당시 여름에 집중호우로 수차례 물을 퍼내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 마무리 되어 이렇게 끝이 나니 뿌듯합니다.

공사담당 이원재 사원

저의 첫 현장입니다. 보건담당으로서 근로자분들이 생활습관을 고쳐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모두 새로운 현장으로 가실 텐데 항상 건강하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담당 강지원 사원

수주 시 기술제안, 수주 후 설계, 시공, 준공까지 관여한 현장이어서 이렇게 마무리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현장은 제 자부심입니다.

전기담당 황정환 과장

바람이 불어 공사를 못한 적도,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와 골조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합심하여 잘 만들어갔습니다. 걱정도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총괄 한성훈 과장

타 현장과 비교하면 높이 않은 직급자들로 모인 현장이지만 모두가 뚝뚝뚝 열정적으로 임하여 큰 성과물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관리책임 김정훈 차장

끝까지 제대로 경험해보며 많은 것을 배웠던 현장입니다. 공무로서 열심히 지원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현장 직원들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공무담당 안수용 대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4위

흔히 '중동'이라고 하면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위험 지대를 떠올린다. 하지만 오만은 여러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경제포럼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4위에 오를 만큼 치안이 좋은 곳이다. 또 아름다운 해변과 신비로운 사막의 오아시스 등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알파벳 O로 시작하는 유일한 나라

미국 CIA의 월드팩트북에는 세계 200개 나라 이름이 영문으로 올라와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나라는 오직 단 하나. 오만 뿐이다. 많고 많은 나라 중 오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리고 더 나가 TMI 하나 더 투척! Q로 시작하는 나라는 카타르뿐이고, Y로 시작하는 나라는 예멘뿐이다. 그리고 W와 X로 시작하는 나라는 없다.

<신밧드의 모험> 신밧드의 고향

어렸을 적 TV만화 또는 책으로 봤던 <신밧드의 모험>. 모험 이야기를 듣게 된 신밧드가 그 길로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이 신밧드의 고향이 바로 오만. 정확히는 오만의 소하르다. 이곳은 오만 제3의 도시이며 고대 오만의 수도였다. 우리는 신밧드를 가상의 인물이라 생각하지만 소하르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라고 믿고있다고 한다.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노력, 거북 태깅 프로그램 운영

바다와 밀접한 오만은 해양생태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거북 태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다거북의 등 위에 신용카드만한 크기의 인공위성추적기를 부착하여 거북이 생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얻은 정보는 바다거북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생존하는지를 확인하여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는 데에 활용된다.

오만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 두쿰 정유공장 PJ

우리 회사는 오만 수도인 무스카트에서 남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쿰 특별경제구역에 정유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 공사는 3개의 패키지로 구성된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 중 패키지 1번 프로세스시설을 스페인 EPC사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합작법인으로 짓는다. 완공시 일일 23만 배럴의 정유 생산이 가능한 오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유공장이 될 것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47개월로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오만에서 1999년 방파제 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 두쿰 수리조선소와 2015년 2천MW급의 SUR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으며, 앞으로도 인근 지역에서 발주할 대형 석유화학 사업들을 수주하여 글로벌 회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

알지 못했던 나라 오만 TMI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 오만. 검색창에 오만을 치면 '오만과 편견'이 제일 먼저 뜬다. 그래서 한 번 찾아보았다. 알아두면 언젠간 쓸모 있을 오만 TMI.

TMI란?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뜻한다.

하지만 요즘은 아주 세부적이거나 몰랐던 작은 이야기를 뜻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Information

Too Much

MAN



세계에서 일반석 앞뒤가 가장 넓은 국영항공사를 가진 나라

비행기 이코노미석은 좁아서 답답하다. 그저 비용 때문에 선택하는 좌석이다. 하지만 오만의 국영항공사인 오만항공은 다르다. 약 86cm에 달하는 넓은 좌석 간격을 자랑한다. 넓은 간격뿐만 아니라 개별 좌석에 고정되어 있는 27cm의 대형 LED 스크린, 아랍 전통 음식과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로 '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중동 지역 최고의 이코노미 클래스' 부분에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 보유

오만은 총 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였다. 바흐라 요새(1987), 바트·알쿠티·알아윈 고고유적(1988),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1994), 프란킨센스 유적(2000), 아플라즈 관개시설 유적지(2006)다. 하지만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이 취소되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아라비아 오릭스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했지만 오만 정부가 보호구역을 90%까지 줄이는 바람에 2007년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 취소가 된 첫 사례이다.

오만의 도시 카삽,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 6위

영국 텔레그래프 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소개했는데, 그 중 오만의 카삽이 6위에 올랐다. 카삽은 아라비아어로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며, 무산덱 반도의 수도이기도 하다. 이곳은 중동의 피오르드라고 불릴 정도로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길게 펼쳐진 해안,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돌산들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지진과 건물노후화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다

구조물 보수보강기술

잘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잘 만든 후 잘 관리하고 문제발생 시 완벽하게 보수보강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노후화 건물 급증으로 우리의 안전지대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회사의 기술연구원은 구조물 보수보강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글. 기술연구원

설상가상, 증가하는 지진과 노후 시설물

지난해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2017년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는 등 내진설계 규제는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2017년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보비율을 살펴보면 전체는 79%로 학교시설 17.1%, 공공 업무시설 7.1%, 단독주택 4.4%가 지진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의 노후 건축물이 지진 발생에 취약한데,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705만동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254만동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지진 등의 재해 피해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후화된 인프라 구조물과 건축물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노후 구조물은 지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 자체의 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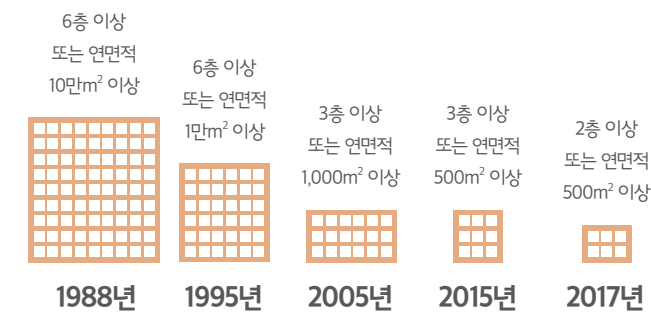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주택 200만호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수많은 시설물들이 새로 지어졌는데 2020년 이후에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다.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된 도로와 교량 등의 기반시설물 비중은 2014년 9.5%인 반면 2024년에는 21.5%로 노후시설물들이 급증하게 된다.

건설업 패러다임 전환, 유지보수 시장 증가

OECD 국가들의 지난 30년 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변화를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는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더 이상 크게 감소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그 주된 원인은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투자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 건설시장에서 유지보수 시장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40~50%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시장에서 유지보수 시장의 비중은 20% 이하로 추정되나, 1990년대 신축된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는 2020년 이후에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된다. 신축시장은 감소하고 유지보수시장이 급증하는 건설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기술연구원은 지진과 구조물의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증가하는 유지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보수보강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2017년 건설신기술을 확보한 균열 주입 공법과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적용 예정인 기둥 내진보강 기술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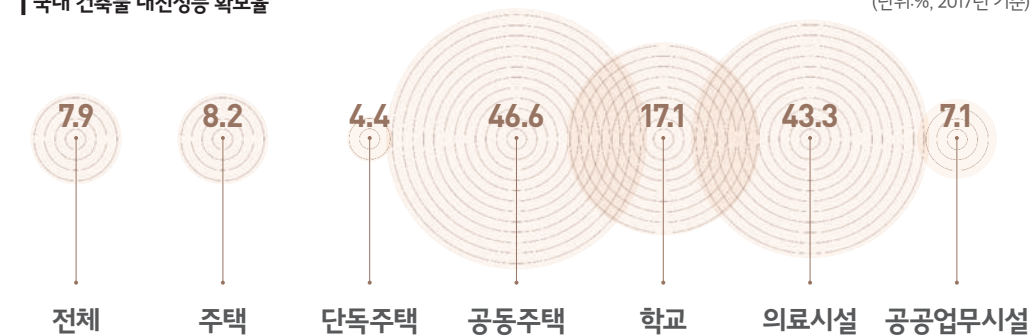
건축법상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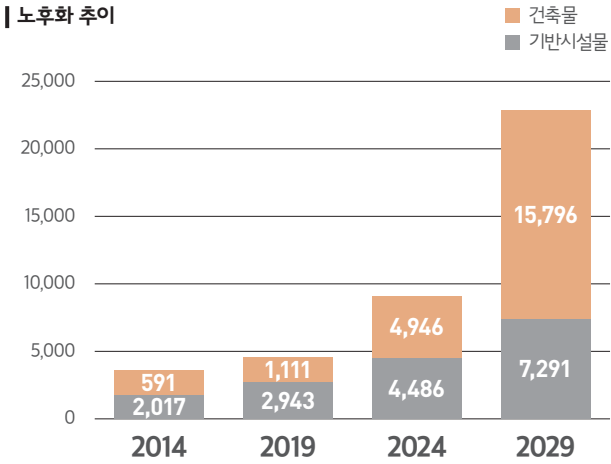
국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

(단위:%, 2017년 기준)



전체 건축물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 비중. 자료: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실, 국토교통부

| 노후화 추이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균열 심부 미세균열까지 보수한다.

T-Port System(TPS)공법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 내부로 공기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공기와 물은 균열 내부의 철근을 부식시켜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의 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균열 보수 공법인 TPS 공법은 균열 보수액의 역류는 방지하고 내부 공기 배출이 가능한 스마트 밸브와 라텍스 고무 재질로 개발된 탄성저장관이 조합된 T-Port와 T-Port 사이에 설치하여 보수액의 주입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공법의 특징은 기존 주사기 공법보다 약 1.5~2.0배 이상인 40~50cc의 보수액을 저장할 수 있으며, 균열부에 100cc의 보수액을 주입하는 시간이 2.2분으로 기존 주사기 공법(7.2분) 대비 약 70%의 시간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밸브에 의해 공기 배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보수액 주입이 기존 공법보다 수월하다. 특히 해당 공법은 라텍스 고무 탄성 저장관의 영향으로 2.5~3.0기압의 지속적인 압력이 발생(풍선효과)하여 저장관 내 보수액을 균열 심부 미세균열까지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공법은 당사 주택 및 토목 현장의 균열 보수공사에 다수 적용하여 기술을 검증하고 성능을 입증하였다. 2018년에는 서울시 두 모교의 구조 안정성 검토시 확인된 균열을 보수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성공리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TPS 공법은 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 건설신기술 822호로 지정되었다.

품질과 시공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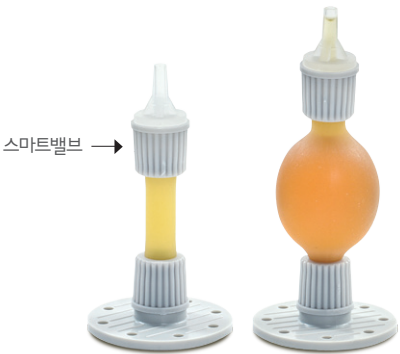
New Bar Reinforcement(NBR) 내진보강공법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설계규제 강화로 내진보강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연구원이 개발한 NBR 공법은 기둥의 외주면에 일정 간격으로 보강재(강재)를 배치하여 보강재에 의한 심부 구속 면적(지진에 저항하는 기둥 면적)을 증가시켜 지진에 저항하는 힘(연성도 및 전단내력)을 향상시키는 내진보강공법으로 필로티나 지하철 등의 기둥 구조물에 강재를 체결하는 간편한 시공으로도 내진보강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당 공법은 직선 또는 반원형의 강재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재의 고정은 볼트 체결로 한다. 내진 강국인 일본은 이미 유사공법인 강재체결 공법을 지하철 등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 NBR 공법은 단순 볼트 체결만으로 강재를 연결하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단축이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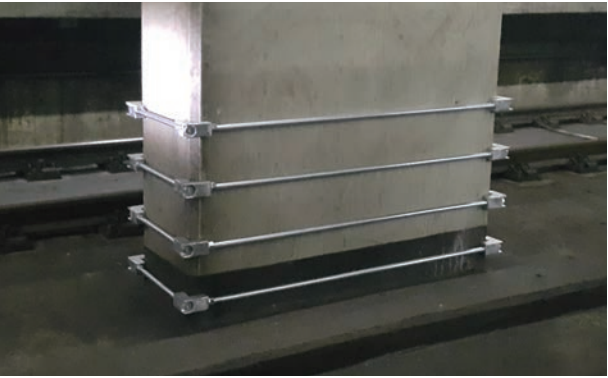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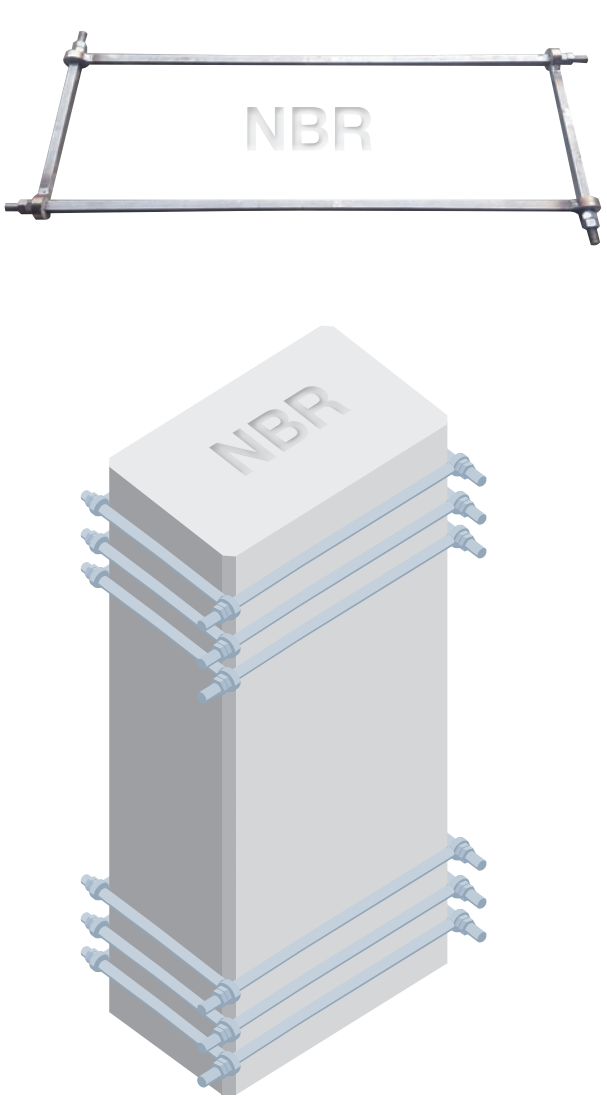
특히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3~4시간동안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 매우 적합하다. 그리고 렌치로 긴장력을 도입한 즉시 강재의 구속 효력이 발현되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가 없다. 또한, 기둥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해당 공법은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공사(3단계) 공법으로 선정되어(정거장 6개 공구 중 5개 공구)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2019년 8월 시공 발주 예정이다. 해당 실적 바탕으로 향후에는 서울지하철 1~8호선 내진설계 미반영구간, 부산/대구 지하철구간에 공법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 T-Port



| NBR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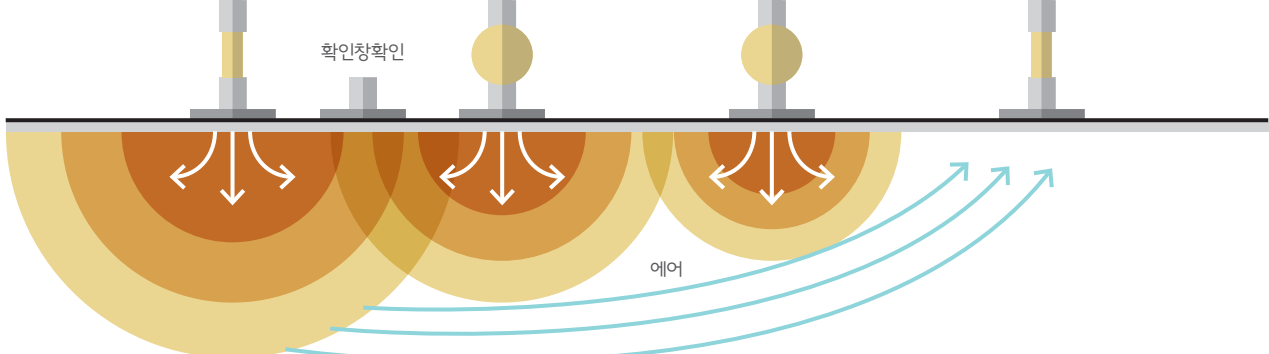
구조물 보수보강의 Total Solution Provider, 대우건설기술연구원

우리 회사의 기술연구원은 앞서 소개한 기술 외에도 다양한 보수재료와 차수, 지반개량 및 댐 등의 수리구조물 누수보수 등의 보수보강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도로포장, 방수 및 도장 보수 공법 등의 보수보강 전반의 기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드론 및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구조물 조사 및 진단 기술을 확보하여 구조물 조사, 진단, 시공, 관리의 Total Solution Provide Service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의 구조물 조사, 진단 기술 및 건축, 토목 구조물의 다양한 보수보강기술의 확보는 향후 확대 전망되는 노후 구조물 유지보수시장을 선점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지난 한반도 지진 115회,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많아, 연합뉴스
2030 건설시장-신축 쇠퇴, 유지보수 위주로 전환, 이흥일

| TPS 공법 시공 개념도



뉴트로를 입고 프레임 안에 담다

복고 콘셉트 사진촬영 체험기

최익준 대리

이혜주 대리

뉴트로 열풍이 뜨겁다. 옛것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뉴트로는 음식과 패션을 넘어 많은 분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도 예외는 아니다. 복고 콘셉트의 사진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사진을 통해 잠시나마 그 시대를 느껴보려 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새로움을, 누군가에겐 추억을 선사하는 뉴트로를 경험해보기 위해 대우건설인들이 나섰다.



“연애할 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기억할만한 곳에 놀러 가면 인증샷을 남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땐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출산 후에는 아기 사진만 주로 찍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핸드폰 사진첩에는 아기 사진들로 가득해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인생샷

플랜트사업본부 기계설계팀의 최익준 대리와 이혜주 대리. 둘은 회사가 맺어준 부부다. 입사 동기로 만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서로의 모습에 믿음과 확신이 생겨 동료를 넘은 가족이라는 소중한 연을 맺었다. “연애할 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기억할만한 곳에 놀러 가면 인증샷을 남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땐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출산 후에는 아기 사진만 주로 찍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핸드폰 사진첩에는 아기 사진들로 가득해요.” 웨딩사진 촬영 외에 특별히 의미 있는 사진을 남길 기회가 없었다는 그들. 더욱이 아기가 생긴 이후에는 둘만의 사진을 찍을 기회가 더 없었다는 이혜주 대리의 말을 듣고 나니, 이번 사진관 체험이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만 같았다.

경성시대의 셀럽으로! 모던 보이 & 모던 걸

뉴트로의 유행으로 복고 사진을 찍는 사진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산격동 사진관에서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촬영을 진행하기로 하고 홍대에 있는 지점을 찾았다. 평일이었음에도 사진관은 사람들로 붐볐다. 촬영 준비를 위해 이동한 탈의실에는 다양한 복고 스타일의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먼저 고를 의상은 경성시대를 배경으로 한 의상이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구한말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가슴 아픈 스토리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의상도 많은 눈길을 끌었다.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던 이 시대에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우아하고 세련된 서구적인 슈트와 드레스, 이것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촬영 콘셉트였다. 최익준 대리는 깔끔한 세로 줄무늬의 쓰리피스 슈트를 입고, 붉은색 넥타이로 마무리했다. 회사에서 늘 보던 슈트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이혜주 대리는 프릴 장식이 달린 화려한 무늬의 붉은색 드레스를 골랐다. 서로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모습이 영락없는 부부였다.

준비가 끝나고 경성시대를 재현해놓은 스튜디오로 이동. 화려한 무늬와 근엄한 분위기로 꾸며진 스튜디오의 중앙엔 엔틱한 의자 하나가 놓여있었다. 의자 주변으로 포토그래퍼의 조언에 따라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모

습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 보였지만 이내 멋스러웠다. 이런 촬영이라면 다소 긴장할 만도 하지만, 웨딩 촬영을 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포즈와 표정에 집중했다.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한다는 웨딩 촬영이 저는 무척 힘들었어요. 장시간 동안 사진을 찍어본 적은 처음이었고, 계속 웃는 표정을 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이런 촬영은 크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고 잘 한다는 포토그래퍼의 칭찬에 최익준 대리는 웨딩 촬영의 기억을 떠올렸다. 촬영이 끝나고 모니터 앞에 앉은 두 사람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르고 있었다. 인생 사진을 건지고 싶다는 그들은 신중히 사진 한 장 한 장을 살폈다. 선택된 사진은 약간의 보정을 거친 후 인화되어 작은 사진첩에 끼워졌다. 그동안 두 사람은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그 시절 철수와 영희처럼! 익준아 안녕? 혜주야 안녕?

두 번째 촬영 콘셉트는 ‘응답하라’였다. “아이고 김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80년대의 유행어로 모두를 추억에 잠기게 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이번 콘셉트 역시 드라마에서 소개되었던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촬영이었다. 앞선 정성시대는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었다면, 이번 응답하라는 직접 경험한 이들도 많은, 조금은 더 현재와 가까운 시대의 콘셉트였다. 이해주 대리는 과거 패션의 트렌드였던 청청을 재현하였다. 청바지에 청자켓, 그리고 빨간색 모자를 뒤집어쓰며 멋지게 소화했다.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어린 시절 한번은 입어봤을 뽕뽕바지에 리바이스 로고가 적힌 티셔츠, 금테 안경으로 코디한 최익준 대리는 귀여움을 한껏 살렸



오빠랑 흥대까지 와서
만화방엘 왔당!!
만화책을 쌓아두고 읽으니
스트레스가 풀렸사.



다. “뽕뽕바지는 한 쪽 끈을 풀러 뒤로 넘겨야지.” 이해주 대리의 디테일한 스타일링 코치에 최익준 대리의 코디는 더욱 완벽해졌다. 두 사람은 80년대에서 시간을 거슬러 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그때의 패션을 잘 소화해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둘은 생김새가 아닌 그 느낌에서도 굉장히 닮아보였다. 이번 촬영은 다양한 소품과 포즈들로 진행되었다. 책상에 걸터앉아 기타를 연주하는 이해주 대리를 보며 최익준 대리는 흥겨운 듯 박수를 치기도 했고, 의자를 밟고 서서 턱을 손으로 괴며 그 시절의 연예인 화보집 같은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무릎베개를 하며 다정한 눈빛도 나누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이리저리 만화책을 펼쳐보며 화기에애한 촬영을 이어갔다.

소중한 추억을 가리며

촬영이 모두 끝났다. 의상을 갈아입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인화된 사진을 보며 사진첩에 글귀를 적기 시작했다. 오늘의 체험으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는 두 사람. 이해주 대리는 따뜻한 방안에 누워 뒹굴며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보던 때를 떠올렸다. “학창시절에는 만화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섭렵했었죠. 고등학교 땐 점심시간에 만화책을 빌리러 가기 위해 친구들과 담을 넘기도 했어요. 오늘 스튜디오에 있는 만화책을 보니 그때의 추억이 떠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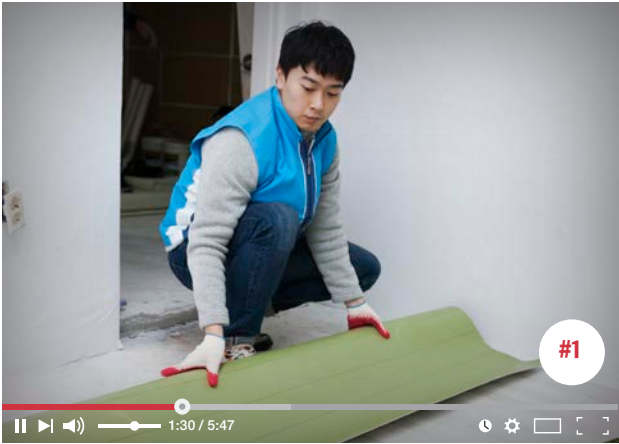
이혜주 대리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뉴트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최익준 대리
“촬영 내내 드라마 생각이 났어요.
내가 즐겨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내가 나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요. 오래 추억으로 남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르네요.” 이어 최익준 대리도 추억의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옷 정리를 하면서 취업 준비 때 입던 정장을 찾았어요. 8년 전이라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평퍼짐한 바지에 넉넉한 어깨를 보며 이때는 이런 옷이 유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대우건설에 입사하게 도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소중한 옷이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며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것도 많다는 그들. 최익준 대리는 아내, 아기와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고 했다. 푸르른 자연이 있는 곳에서 편안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휘게라이프를 보내고 싶다는 것. 이어 이해주 대리는 남편과 요가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몇 년간 요가를 해보니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것. 특히 아기가 조금 더 크면 키즈 요가를 배우게 해서 세 가족이 함께 요가 수련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오늘의 촬영은 단순히 뉴트로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의 지난 추억을 공유하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계획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최근 옷 정리를 하면서 취업 준비 때 입던 정장을 찾았어요. 8년 전이라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평퍼짐한 바지에 넉넉한 어깨를 보며 이때는 이런 옷이 유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대우건설에 입사하게 도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소중한 옷이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의 어느 날, 마포구에 위치한 한 노후주택 앞에는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희망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플랜트사업본부, 감사실 그리고 푸르지오 서비스 직원 10명이 모인 것이다. 마포구가 한국도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 받은 주택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페인트, 단열작업 등 업무가 배분되었고 이내 분주해졌다. 물품 반죽을 양동이에 풀어 물과 섞으며, 반죽에 깊숙이 손을 담가 입자를 직접 확인하는가 하면, 도배지를 시공하기 편리하게 적당한 여유면적을 잡아 재단하는 세밀한 모습도 보였다. 벽과 천장은 물론이고 창틀 주변의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도배하고, 분리한 문은 밖으로 옮겨 흰색 페인트를 붓으로 여러 번 겹쳐 칠하며 손잡이와 파손된 곳을 보수했다. 추운 날씨에도 직원들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혔다. 주택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은 직원들 덕분에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함께 참여한 해비타트의 간사도 우리 직원들의 솜씨에 감탄을 자아냈다. 봉사활동은 6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으며, 끝난 뒤에는 주변 정리를 잊지 않았다. 서로 나눴던 “수고했어” 이 한마디에 고된 하루의 피로가 모두 가시는 듯 했다.



#1 편히 앉게 해줄게요
깨끗한 벽과 함께 필요한 건 깨끗한 바닥! 방 사이즈에 맞는지 펼쳐보고, 접어보고, 편히 앉아 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눈으로 체크해본다.

#2 깨끗한 문 사이로 희망이 들어오길
깨끗하게 페인트칠 된 방문. 낮은 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말끔해졌다. 이제 다시 고정시켜주면 끝!

#3 이정도면 되려나?
벽지가 벽에 잘 붙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물품이 핵심! 물품 반죽이 잘 풀여졌는지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수밖에. “음. 완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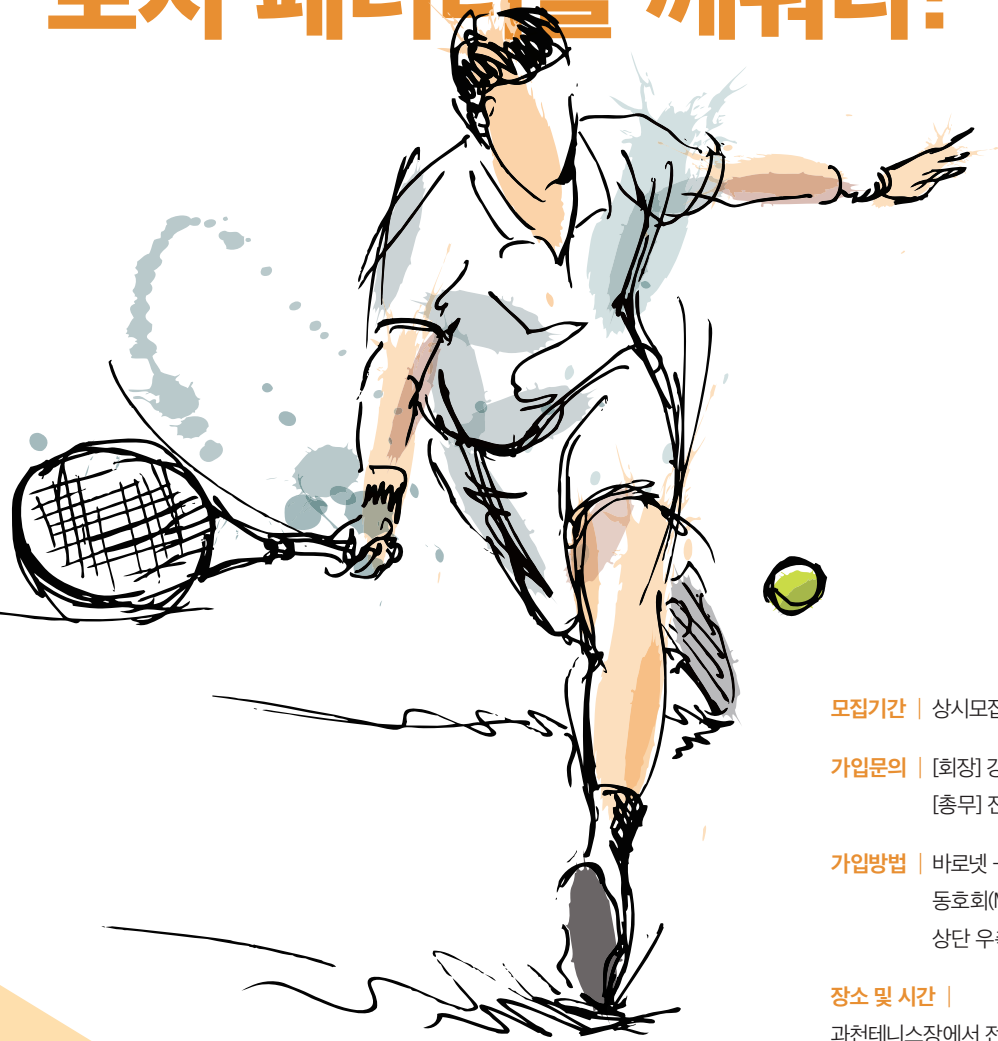
#4 구석구석 골고루 풀칠하기
벽지 어느 곳 빠짐없이 골고루 물품을 속속 삭삭 바른다. 너무 많이 바르는 것도 금물! 꼼꼼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5 초집중!
들뜸 없이 벽지를 붙이기 위한 초 집중의 시간.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붙이는 순간 숨도 천천히 쉬어지는 건 왜일까?



테니스 동호회

네 안의 로저 페더러를 깨워라!



모집기간 | 상시모집

가입문의 | [회장] 강상준 부장(투자관리팀)
[총무] 전재용 과장(예비군대대)

가입방법 | 바로넷 - 커뮤니티 -
동호회(Major Group) - 테니스 동호회 -
상단 우측 '회원가입' 클릭

장소 및 시간 |
과천테니스장에서 전문코치 지도하에
주 1회(토, 10:00~12:00) 레슨

혜택1

하체 부실
근력강화 보장

혜택2

테알못
속성 실력향상
보장

혜택3

1시간에
500kcal 소모
보장

JUST DO HIT

탁구 동호회

41페이지를 펼친 순간부터 당신은 신입부원!



모집기간 | 상시모집

가입문의 | [회장] 이강우 부장(해외인프라개발팀)
[부회장] 유희숙 차장(영업관리팀)
[총무] 이호재 대리(플랜트건설1팀)

가입방법 | 바로넷 - 커뮤니티 -
동호회(Major Group) - 탁구동호회 -
상단 우측 '회원가입' 클릭

장소 및 시간 |
새문안 교회 탁구장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운동

혜택1

동체시력
상승 보장

혜택2

무릎관절
안전 보장

혜택3

땀 흘린 후의
완벽한
기력보강 타임

IT'S PING PONG TIME

Are you 나나랜더?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 봐요.” 한 때 전국민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던 DJ DOC의 <DOC와의 춤을>이라는 노래다. 이 노랫말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번 2019년 핫 키워드로 뜨고 있다. 바로 나나랜드에 살고 있는 나나랜더다.

나나랜드로 떠난 사람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들었던 멘트.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아들이고, 나는 나인데 늘 비교를 당하며 살아왔고, 때로는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고 있다. 이 비교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자존감 회복과 궁극의 행복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선다. 이 자존감은 스펙을 쌓기 위한 억지 노력, 힘겨운 성형과 다이어트, 명품이나 외제차를 구매하는 무리한 소비가 아닌 자기애와 연결된다. 자존감의 핵심은 자신의 장점은 물론 약점과 단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여전히 사랑하며 신뢰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진정한 자존감을 찾아 떠난 여정의 종착지, 그곳이 바로 나나랜드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나’는 나나랜더다.

***나나랜더:** 나나랜드는 진정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정착한 기회의 땅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을 나나랜더라 한다. 이들의 큰 특징은 획일화된 규범과 관습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

몸무게나 체형과 관계없이 자신의 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몸 긍정주의가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면서 패션산업에서는 이를 활용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플러스 사이즈 모델 및 시니어 모델의 기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활용한 광고는 표준적인 모델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신도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기주체성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이제는 ‘자기주체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나나랜더들은 단순히 자존감 향상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자존감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존감의 진정한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화룡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다. 때문에 출판계의 동향 또한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는 키워드가 더욱 큰 주목과 인기를 얻고 있다.

규범에서의 위대한 탈출

사회적 기준이나 통념을 거부하는 나나랜더들에게 반드시 정해진 삶의 규범이란 애초부터 없다. 모든 것을 꼭 정해진 규범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가치가 그들 인생의 방향성이 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여 자기만족 또한 높다. 이들에게 통념이나 규범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양성

내가 중심인 나나랜더들을 이기주의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나랜더들은 내가 남과 다르듯 남들 또한 나와 다르며 있는 그대로의 타인 또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들에게 개개인의 다양성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또 인정받아야 하는 개념이다.

에글리 시크

예쁜 것만 주목받던 시대는 지났다. 이른바 못생긴 것이 가장 핫한 트렌드로, 나나랜드 트렌드의 정점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우리나라 ‘아재’들의 정장 바지에 등산복 상의, 반팔 티셔츠에 쿨토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형광색 컬러의 조합을 보고 “스포티함과 캐주얼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믹스매치 정신”이라며 극찬했다. 이것은 곧 주류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의 취향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코노미

‘일코노미(1+Economy)’가 ‘미코노미(Me+Economy)’로 진화하였다. 기존의 일코노미가 단순히 1인 가구의 경제활동을 나타냈다면 미코노미는 소비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코노미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였던 ‘소확행’을 만나 ‘포미(for me)족’이 추구하는 소비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4050 이상 연령층의 취미생활을 위한 해외직구 이용률 증가를 한 예로 들 수 있겠다.

해가 저문 후 예술품과 함께 하는 저녁시간



하루 종일 올리는 전화, 의견이 오고가는 격정적인 회의, 주변의 크고 작은 소음. 조용한 굴속으로 들어가고만 싶을 땐 퇴근길에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예술품이 전하는 감성이 탈탈 털렸던 내 영혼에 다시 생기 가득한 빛으로 가득 채워준다. 요즘에는 평일 야간연장개장을 하는 미술관이 있으니 요일에 맞게 골라 가보자.

❶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

필환경 시대에 플라스틱 사용 자체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가 크리스 조던. 그는 환경예술 사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작가로, 이번 전시에는 플라스틱 세계를 가장 진정성 있는 작가의 해석으로 풀어냈다. 이 전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현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환경문제를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장소 | 성곡미술관
일시 | 5월 5일까지(마지막 수요일 10시~20시까지)

❷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세계 각지의 주목받고 있는 작가 16인의 드로잉과 일러스트레이션 등 35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이번 전시는 익숙한 듯 새로운 풍경, 내면으로의 여정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다. 또한 디지털화된 시각 이미지로 가득한 현대 사회의 우리에게 작가들이 손끝으로 그려낸 일상 속 특별한 이야기와, 눈과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하는 섬세하고 미묘한 감성을 오롯이 전한다.

장소 | 디뮤지엄
일시 | 9월 1일까지(매주 수요일 10시~20시까지)

❸ 헤르만 헤세: 치유의 그림들

세계적인 작가 헤르만 헤세의 유품 및 채색화, 희귀 초판본 등 오리지널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다. 예술은 영혼의 언어이고, 내면의 떨림을 표현하고 보전하는 기술이라고 했던 작가의 뜻에 따라 이번 전시는 '헤세의 초대', '방황과 고통', '사랑과 우정', '치유와 회복', '헤세 뮤지엄', '평화와 희망'이라는 주제, 총 11개의 공간으로 전시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진품과 함께 헤르만 헤세의 작품 세계관을 디지털 아트로도 감상할 수 있다.

장소 | 호반아트리움
일시 | 6월 9일까지(10시~20시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❹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展

“내게 그림이란 사랑스럽고 기쁘고 예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화려한 색감과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작품을 남긴 르누아르.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는 미디어아트 전시다.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의 조화가 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준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현대인의 메탈라가는 감성을 되살리고 정서를 치유하는 ‘메디힐링’ 전시로, 전시장 입구에는 아로마 오일이 비치되어 있어 여러 향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장소 | 본다벤처 뮤지엄 갤러리아포레점
일시 | 4월 28일까지(마지막 수요일 10시~20시30분까지)



❺ The Flower: 설렘충전소

우리에게 가장 설렘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The Flower: 설렘충전소>는 꽃과 사랑을 주제로 한 전시회다. 싱그럽게 막 돌아난 새싹처럼, 담장을 뒤덮은 담쟁이 덩굴잎처럼 사랑의 시작을 꽃과 함께 느껴볼 수 있다. 전시는 '사랑의 설렘', '고백의 설렘', '영원한 사랑' 등 총 3가지로 구성된다. 각 구성마다 포토존이 마련되어 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꽃향기 가득한 저녁시간을 만들어보자.

장소 |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일시 | 5월 31일까지(11시~20시까지)

❻ 마르셀 뒤샹

변기를 작품으로 내놓고 '샘'이라 말하며 예술계에 큰 획을 그은 마르셀 뒤샹. 이번 전시는 뒤샹 사후 50주년 되는 해를 맞아 열리는 것으로,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대 최대 규모 전시다. 뒤샹의 주요 작품 '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등과 뒤샹을 소재로 한 사진, 드로잉 작품 150점으로 구성되며, 뒤샹 최후의 작품으로 알려진 '예탕 도네'가 디지털로 재현된다.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일시 | 4월 7일까지(매주 금요일 10시~21시까지)

메멘토 모리; 프랑스인이 죽은 자를 위해 큰 건물을 만드는 이유

LES
INVALIDES

세상의 많은 부분은 살아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많은 부분’ 땀주 밖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 프랑스인.
그들에게는 죽음 또한 삶의 일부다.
이러한 태도는 프랑스 곳곳에 있는
건축물에도 스며들어 있다.

글 조승연(세계문화전문가)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은행, 우체국, 사무실 등
산 사람을 위한 건물이
도시의 중심이라면,
프랑스는 거대한 무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죽은 고래의 뼈와 같은 곳

한번은 어머니 친구분의 딸이 혼자 처음으로 프랑스에 온다고 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책에서만 보던 예술 작품을 직접 보고 자기가 동경하는 화가들의 생가를 방문한다는 사실에 무척 마음이 설렘던 것 같다. 역에서 그녀를 만난 나는 프랑스에 대한 첫인상이 궁금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큰 건물을 만들었죠?”

나는 그때 한창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중이었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문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파리를 내려다보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무덤 건물이다. 프랑스 의회 건물 뒤로 우뚝 솟은 ‘레장발리드(Les Invalides)’의 황금 돔 아래에는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다. 소르본대학(파리1대학)을 내려다보고 있는 판테온은 국가가 관리하는, 프랑스를 빛낸 영웅들의 국립 묘지다. 이 두 건물은 파리 도시 전경의 양대 축이다.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은행, 우체국, 사무실 등 산 사

람을 위한 건물이 도시의 중심이라면, 프랑스는 거대한 무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인 카타콤베(Catacombe)는 흑사병 유행기에 죽은 파리 시민의 뺏더미가 묻힌 곳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아름다운 성당들은 성인과 왕들의 관과 신체의 일부를 성물로 모시고 있다. 프랑스에 처음 놀러온 내 미국 친구 알렉스도 파리의 첫인상을 “죽은 고래의 뼈 같다”라고 했는데 파리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본 말인 것 같다.

라틴족의 후예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프랑스는 라틴 문화권에 속한다. 라틴 문화권 고대 로마 시대의 문화를 말한다. 고대 로마는 죽음을 가까이하며 살았다. 많은 서양 사극 영화에서 다루는 검투사 경기는 원래 로마시대의 제사 의례였다. 검투를 하다가 노예가 죽으면 그 피로써 죽은 로마인을 위로하는 죽음의 향연이었던 것이다. 로마의 귀족은 죽은 조상의 얼굴을 석고로 본뜬 ‘데드 마스크’를 자기 집 입구에 걸어놓고 살았다.

로마시대부터 라틴족은 죽음을 어둡고 음산한 것



PANTHEON



CATACOMBE

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 같은 것으로 믿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에세이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자연이 알아서 죽인다”라고 말했다. 어차피 늙어 죽을 사람을 좀 더 빨리 보내고 싶어 살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라는 것이다. 어차피 죽는다는 것, 즉 인생의 엔딩이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또 그 엔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발버둥치며 살 필요 없다는 철학이 라틴 민족의 후손인 프랑스인이 낙천적이고 열정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요소로 승화한 것 같다.

메멘토 모리

죽음과 관련하여 프랑스인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 프랑스 남부 마을 바르르뒤크(Bar-le-Duc)의 생테티엔(Saint-Étienne) 성당 안의 해골상이다. 수의를 입고 부패해가는 해골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중세 귀족 중에는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죽은 후의 모습인 해골이나 벌레가 뜯어먹은 시체 모양으로 조각을 의뢰하는 사

삶은 죽음이라는 엔딩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파리아말로 그 자체가 거대한 메멘토 모리가 아닐까.

람이 꽤 있었다고 한다. 이런 예술을 ‘트랑지(transi)’라고 하는 프랑스 중세기에 행했던 예술 형태다.

그 때문일까? 프랑스에는 노티로 가득한 젊은이에 비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아무 근심 없는 철부지처럼 해맑다. 아직 미숙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방법을 모르는 젊은이를 비롯듯, 멋쟁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멋진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공원을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샴페인 브랜드 ‘뵈브 클리코(Veuve Clicquot)’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미레유 길리아노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고 현재의 내 이미지를 가장 멋지게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녀에게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주는 거울은 일종의 ‘트랑지’일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이 노화를 가장 덜 걱정한다고 한다. 프랑스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80살은 되어야 ‘늙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삶은 죽음이라는 엔딩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파리아말로 그 자체가 거대한 메멘토 모리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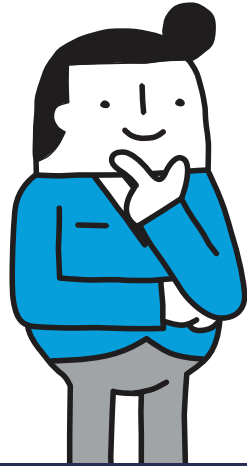


조승연(세계문화전문가)

대중들에게 외국 언어와 역사, 문학, 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파하는 세계문화전문가. <시크:하다>는 그의 20번째 책으로, 주요 저서로는 <플루언트>, <공부기술>, <이야기 인문학>, <비즈니스 인문학> 등이 있다.

* 이 글은 <시크:하다>의 일부를 저자가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정대우 과장의 디지털 비서와 함께 여행 준비하기



회사의 대표적인 워커홀릭 정대우 과장. 2019년 목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 목표를 위한 첫 프로젝트가 바로 나 홀로 여행이다. 마음은 먹었지만 조금 막막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여행을 즐기지 않았던 정대우 과장이었다.
하지만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 IT 기술의 발달로 내 손안에 비서 하나쯤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
바로 나만의 집사 '디지털 컨시어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step 1 집사!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여행지를 찾아줘

정대우 과장은 여행지부터 정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에서 운영하는 여행 컨시어지 '여행특집사'에 접속. 메시지 창이 뜨고 “해외여행 관련 어떤 문의 있으신가요?”라며 집사가 나에게 말을 건다. 단거리 여행으로는 홍콩, 일본을, 장거리로는 서유럽, 미동부를 제안한다. 일본으로 3일 계획을 해볼까 하여 관광지로 오사카와 도쿄를 추천 받아 오사카 여행코스 제안해달라고 하니 대답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한 10분이 지났을까. 3가지 여행 프로그램이 일정과 함께 메시지 창에 떴다. 하나씩 클릭해 들어가 천천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여행지부터 항공, 숙박예약까지 일사천리로 마쳤다. 평소 인터넷에서도 발품 팔기를 귀찮아했던 정대우 과장에게 여행 컨시어지는 정말 편하게 느껴졌다. 블로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특집사에게 ‘오사카 오코노미야끼 숨은 맛집을 알려주세요!’, ‘터미널로 이동방법을 알려주세요!’ 등을 물어보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을 주었다. 여행가서도 바로바로 여행특집사에게 물어보면 되니 가이드도 필요 없겠다 싶어 완벽한 여행을 위한 계획을 짜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었다.

step 3 집사!

나 대신 은행업무 좀 봐줘

아무리 신용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현금도 필요하다. 특히 여행 중 즐기는 길거리 음식의 즐거움을 맛보려면 말이다. 정대우 과장은 환율정보를 체크하려고 한다. 인터넷 검색으로 환율정보를 확인한다? NO! 거래하는 은행 앱을 켜고 대화창에 “환율 조회해줘”라고 하니 바로 환율정보를 알려준다. 정대우 과장이 필요한 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이번에는 “환전 하고싶어”라고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 내일 점심시간 회사로 들어오는 길에 찾으면 끝이다.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공과금 납부를 깜박한 정대우 과장. 다시 어플 카메라를 켜고 지로 촬영. 지로 내용이 자동으로 인식되며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인터넷 발품을 팔면 번거로운 것들이 정대우 과장을 대신해서 디지털 컨시어지가 알아봐주니 그야말로 집사가 따로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즐겁게 떠나는 일 밖에 없다.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길.

step 2 집사!

내가 필요한 물건, 길게 말 안 해도 알지?

정대우 과장이 이번 여행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사진이었다. 예전에는 사진이 취미였는데 업무에만 집중해 살다보니 취미 세포가 다 죽은 듯하다. 다시 그 열정을 깨우기 위해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카메라 중 나에게 맞는 카메라를 고르기 위해 이번에도 쇼핑 디지털 컨시어지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에 접속했다. “가벼운 디지털 카메라 있을까요?”라고 하니 다양한 범위의 무게를 안내해주고 “원하는 가격대가 있으신가요?”라고 먼저 물어봐준다. 30~40만원 대로 찾아봐 달라 하니 3가지 안을 주었다. 각 제품마다 설명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개략적인 사양 설명을 해주어 편리했다. 다른 제품과 달리 디지털 기기를 구매할 때에 직접 매장에 방문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매장에 손님이 많으면 내 차례 기다리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다. 그리고 바쁠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기분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 그에 반해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니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편하게 할 수 있어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편리했다. 이렇게 쇼핑까지 마친 정대우 과장에게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Tip. 정대우 과장이 사용한 디지털 컨시어지



인터파크 '여행특집사'

실시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출국부터 귀국까지 여행 중 생생한 관광정보는 물론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준다. 인터파크투어 어플을 다운받은 후 여행특집사 도시별 여행특방으로 접속하면 된다.



11번가 '11톡'

11번가는 판매원과 1:1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디지털 컨시어지를 통해 특정 제품을 찾기도 전에 먼저 문의를 해서 보다 빠르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KEB 하나은행 HAI

대화형 banking 서비스. 송금, 환전, 공과금 지로 촬영 납부 등 가능하다. 3중 인공지능경망 구조 딥러닝 대화형 AI 엔진을 통해 고객 의도를 파악하고 보다 똑똑하게 대응한다.

당신은 몇째인가요? 숨길 수 없는 태어난 순서 본능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 유전자가 존재한다. 자기의 위치가 정해지면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이 나온다는 것이다. 태어난 순서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했지만 이 역할 유전자는 나도 모르게 사회생활에 있어 불쑥불쑥 튀어 나온다.

이름: 김대리

형제: 3남 중 장남

특가: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깽뚝한 예의범절

특장: '너는 큰형이니까'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람



자기 존재가 밀리고 싶지 않은 맘이

특히 상사들에게 깽뚝한 태도로 예뻐 받는 김대리. 자신보다 나이차가 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림에 어려움 없다. 그래서일까. 같은 팀 동료들은 그를 늘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큰 나무와 같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에게도 간혹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다. 자신에게서 스포트라이트가 빗겨 나가면 불안감을 느낀다. 왜 김대리는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도 불안감을 느낄까?

첫째들은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관심과 사랑이 자신의 것이었다. 그러다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첫째에게 가장 중요한 일생의 미션은 둘째에게 빼앗긴 관심을 회복하는 일이 된다. 그 결과 첫째는 혼자 힘으로 적응해 나가며 다른 사람의 애정이나 인정, 칭찬에 민감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기대에 쉽게 순응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름: 박대리

형제: 3남매 중 둘째

특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강한 생존본능

소원: 안 빼앗기고 편하게 밥 먹기



생존을 위해 완벽을 택한 둘째

가지런히 정리된 책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복장으로 무장한 박대리는 모두가 동경하는 대상인 동시에 함께 있을 때 편하지 않은 동료다. 깔끔한 일처리로 승승장구 하는 그이지만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간혹 마찰이 생기곤 한다. 왜 그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이나 누나라는 '경쟁자'가 버티고 서 있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다른 '막내 동생'이라는 경쟁자가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더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결과 경쟁심이 강하고 야망을 가진 성격이 되기 쉽다. 한편으로는 첫째에 비해 부모의 통제가 덜한 편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향을 보인다. 또한 통제가 덜 했던 만큼 업무든, 개인 생활이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휘하기도 한다.

귀염둥이와 의존 사이의 막내

동기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최대리. 하지만 낙천적이고 구김살 없는 성격에 의외로 '귀염둥이'로 통한다.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좋아한다.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 종종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혼자서 해봐'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 말을 들 때마다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밀고 나가는 동료를 볼 때면 마음속 작은 곳에서 열등감이 피어오를 때가 있다. 그는 집에서 막내아들이었다.

막내는 동생이라는 경쟁자가 없다. 때문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반면 경쟁자가 위에 도사리고 있다. 자기보다 크고 힘이 있는 형, 누나에게 둘러싸였다. 굳이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어 남들이 자기 대신 방향을 설정해주시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독차지하였기 때문에 어른을 대하는 방법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



이름: 최대리

형제: 4남매 중 막내

특가: 어느 자리에서든 구김살 없는 해맑음

올 해의 도전: 낯선 곳 혼자 여행하기

외동, 의존적이거나 독립적이거나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강대리.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만 혼자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인다. 업무에 있어 팀원에게 SOS 신호를 보낼 때는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갈 데까지 갔을 때다. 주변 동료들은 힘들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는 외동으로 자랐으니까.

외동은 자신이 태어난 전후로 집안에 그 어떠한 경쟁자가 없다. 모든 관심과 사랑, 보호는 자신의 것이다. 때문에 응석받이가 되기 쉽고 이런 생활방식은 자존심과 자기중심성이 나타나기 쉽다. 무언가를 나누어 갖거나 협동하는 것을 형제가 있는 사람보다 늦게 배우는 경향이 있다. 의존적인 성향의 외동도 있지만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외동도 많다. 형제가 없어 무엇이든 혼자 해야 했고, 부모의 모든 관심의 집중 대상이기 때문에 자랄수록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 단독으로 업무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름: 강대리

형제: 3대째 무녀 독남

특가: 혼자서 놀기 만렙

장래희망: 두 아이의 아빠

한순간에 가고 싶지 않다면 조절하라!

생활의 기술 1 분노 조절 기술

순간 치밀어 오르는 '욕'을 조절 못해 후회한 경험.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밀도 끝도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한 자리 피하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피하는 것. 말다툼이 생기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그 순간에 벗어나고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3분 참기

분노가 지속되는 시간은 짧게는 30초, 길게는 3분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순간 다른 일을 하면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잊기

비행기 결항처럼 문제를 따져봐야 소용없는 것들이 있다. 과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따지는 것이 건설적이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인정!

살면서 완급조절은 중요하다. 작은 선 하나 넘었을 뿐인데 혹은 가는 경우를 우린 종종 봐 오지 않았던가. 살면서 다른 기술은 없더라도 이 기술만은 갈고 닦아보자. 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조절'의 기술이다.



생활의 기술 2 탕진 조절 기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짬이 탕진짬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그 끝에 마주하는 '탕'장은 한없이 씹쓸하다.

✓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이름 바꾸기

'또 돈 썼니? 한심하다' '돈 새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 'XX은행에서 돈 빠져나갔음' 등으로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번호를 저장해둔다. 돈쓰면서 욕먹는 기분이 들어 조금씩 소비가 줄어든다.

✓ 온라인 알뜰 금융서비스 이용

'비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짜짜짜! 솔로부터 지갑을 구출하셨습니다' 등 지출 현황 및 금융생활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위트 있는 메시지로 소비습관을 잡아준다.

✓ 명칭비용 잡기

조금만 주의했다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을 '명칭비용'이라 말한다. 할인 기간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우산 구매비용, 습관성 택시이용비, 쌓이면 만만치 않은 커피비 등만 아껴도 필요 없이 나가는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생활의 기술 3 고기굽기 불 조절 기술

절대미각들은 안다. 고기의 맛은 불이 좌우한다는 것을. 어디 가서 '고기 좀 굽는데?'라는 말이 듣고 싶다면 지금 소개하는 기본기를 익혀두자.

✓ 삼겹살은 강불 1분 ⇨ 뒤집기

⇨ 1분 30초 ⇨ 뒤집기 ⇨ 30초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날아가 육질이 질겨진다. 강불에서 익혀주다가 두 번 정도 뒤집어주는 것이 포인트.

✓ 곱창은 강에서 약으로

곱창의 생명은 바로 겉은 바삭하게, 안은 '곱' 익히기다. 강한 불에서 곱창을 익혀주다가 약불로 바꾸고 뒤집어 굽는 것이 포인트! 자주 뒤집으면 곱이 새어나오니 주의해야 한다.

✓ 목살은 센불에서!

목살처럼 도톰한 고기는 육즙이 중요하다. 삼겹살과 마찬가지로 강한불에서 익혀주다 두어번 뒤집으면 끝! 센불에서 구우면 육즙이 날아갈 시간이 없다.

✓ 항정살은 강한 불에서 볶아주듯이

항정살은 고기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진득하게 굽기보다는 강한 불에서 볶아주듯이 굽는 것이 좋다. 덜 익으면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은 필수!

✓ 막창은 중불에서 약불로

막창은 중불에서 약불로 불조절을 해주며 구어야 한다. 앞 뒤를 골고루 뒤집어가며 노르스름하게 굽는 것이 포인트. 너무 익으면 딱딱하게 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생활의 기술 4 세 치 혀 조절 기술

자고로 사람이라면 세 치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10cm의 짧은 혀가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트릴 수도 있다.

✓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기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에는 "뒷담화는 화살과 같. 이 사람의 입을 옮겨 다니다가 언젠가는 표적을 바꾸어 말을 내뱉은 사람을 향해 돌진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뒷담화는 굳이 말리진 않겠다.

✓ 뒷담화보다 더 나쁜 '멕이는' 앞담화

'멕이는' 앞담화는 '좋은 사람' 가면을 쓴 채 상대를 곤경에 빠트릴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러 까는 말 밖에 못한'다는 건 스스로 담당하지 못하며, 건강한 관계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는 증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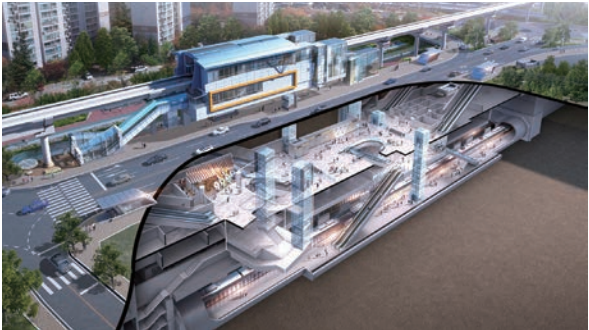
✓ "이건 비밀인데~"

비밀인줄 알면 말하지 말자. 비밀을 내뱉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 비밀은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 건네지면서 몸집이 커지며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낸다.

✓ 일단 하룻밤 자고 일어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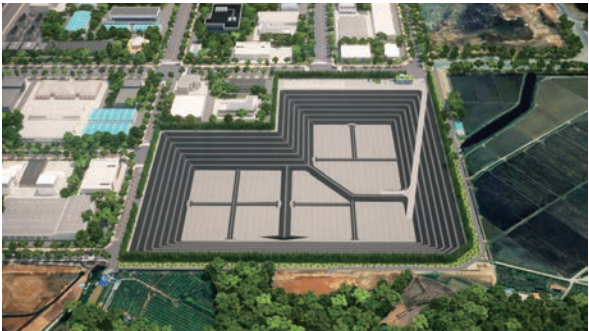
말로 상처를 입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을 땐 모든 힘을 짜내 일단 참자. 그리고 하룻밤 자길 권한다. 자고 나면 의외로 '그 말까진 안 하길 잘 했다'라는 경우가 많다.





도봉산-옥정(7호선 연장)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 수주

우리 회사는 경기도 철도국에서 발주한 도봉산-옥정(7호선 연장)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금오동까지 정거장 1개소, 환기구 3개소, 신호소 1개소를 건설하며, 착공 후 66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진 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주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8일 당진 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수주했다. 주식회사 제이엔텍에서 발주한 이번 사업은 개발면적이 190,777㎡이며, 절토 약 300만㎡, 사토/운반 약 372㎡, CQC, 차수시설, 우수공 등을 시공한다.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착공 후 34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호자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주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22일 대전호자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주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대지면적 59,581㎡ 규모의 공동주택 1,620세대(분양 1,296세대, 임대 324세대)를 건설한다.



카타르 Orbital Highway(Al Majd Road) 전체 개통식 개최

카타르 Orbital Highway 전체 개통식이 지난 2월 7일 카타르의 국무총리, 도로청장 및 유관기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로써 195km(당사분 42km)의 도로 전구간이 공식적으로 개통되었다.



경주센트럴푸르지오현장 준공

경주센트럴푸르지오현장은 지난 1월 24일 경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2층~지상25층 15개동, 아파트 1,6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현장 준공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현장은 지난 2월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1층~지상25층 19개동, 아파트 1,6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비전지웰푸르지오현장 준공

평택비전지웰푸르지오현장은 지난 1월 25일 평택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1층~지상27층 8개동, 아파트 7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현장 준공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현장은 지난 2월 22일 평택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1층~지상27층 7개동, 아파트 6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

회사는 지난 1월 29일 인재원 대강당에서 '2019년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사 및 각 본부별 2019년 사업계획 및 중장기 전략 이행방안에 대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으며, 경영현황과 대응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되었다.



2019년 신입사원 수료식 및 CEO와의 대화

지난 1월 31일 인재원에서 신입사원 78명의 수료식 및 CEO와의 대화가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입문 과정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2019년 신입 임원 교육과정 진행

신임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진행되었다. 임원의 책임과 역할 인식 및 리더십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에서, 총 21명의 신임 임원이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경영혁신 핵심 역량 개발에 대한 과정을 수료했다.



인도네시아 트리파-2 수력발전사업 공동개발협약

‘인도네시아 트리파-2 수력발전사업 공동개발협약’ 서명식이 지난 2월 15일 18층 보드룸에서 이시스애파트너스, BS Energy, SPE 및 대우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트리파-2 수력발전사업은 인도네시아 아체주에 114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CEO 안전점검 실시

김형 사장은 지난 2월 26일 송도지웰푸르지오시티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험성평가 결과가 TBM을 통해 전달되고 현장에 실제로 적용,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과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으며, 직원과 근로자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착공식 개최

지난 3월 5일, 남제주발전본부에서 김형 사장, 김광호 플랜트사업본부장, 제주도지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당사는 주기기 설계 및 구매, 납품,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2019년 우수/주력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2019년 우수/주력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가 지난 2월 27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101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형 사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품질향상, 안전사고방지, 원가절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라이팅칠드런 태양광랜턴 만들기 봉사활동 실시

라이팅칠드런 태양광랜턴 만들기 봉사활동이 지난 2월 16일 직원과 배우자, 자녀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씨앗갤러리에서 실시되었다. 직원노사협의회와 함께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참석자들은 랜턴을 제작하여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발송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우건설인 2019년 1+2월호 독자의견



1등(물걸레 청소기)



김민겸(대곡소사복선전철3공구현장 김성근 차장)

'집중! 이 현장'이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설에 친구가 천사대교 덕분에 안양부터 신안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옛날엔 천사대교가 없어 목포에서 신안까지 뽈라도 3시간, 배가 결항되면 이를까지 걸린다고 했는데, 현재는 천사대교 덕분에 2 시간이면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교를 만든 아빠 회사가 자랑스럽 습니다.

2등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대구음식물처리시설운영현장 강종욱 대리

칵테일 클래스가 가장 저와 아내에게 기 억에 남는 칼럼이었습니다. 연애시절에 는 맛난 칵테일도 찾아다니며 마셨는데 결혼 10년차인 지금은 잊고 살았던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바쁜 생활로 낭만을 잊어버린 현실이지만 돌아오는 휴일에는 여유를 갖고 칵테일 한잔 아내와 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명절에 지친 아내에게 박카스 한 병 전하며 애교를 부려봅니다.



김지혜(전기계장설계팀 김동진 대리)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How to' 칼럼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공통된 이익 추구를 위해 신뢰와 파트너십이 필요 하다고 했는데요. 부부사이 또는 아이들 과의 사이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육아에도 기다 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 남편과의 신뢰를 통해 파트너십을 발휘 해 야겠습니다.

3등 (기프트콘 2만원 상당)

이승민(인도물바이해상교량PJ현장 이락근 부장)

'공간에세이' 칼럼을 읽으면서 남산과 센트럴파크의 차이점 중, 대지의 경사가 지나는 의미에 대해 새삼스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주의 스트레스도 풀 겸 가족들과 산을 다녔는데, 나만 힐링 하려 다닌 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손잡고 가까운 공원을 찾아 서로를 마주보며, 사랑스런 눈빛으로 대화를 많이 해야겠어요.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enc.com ☎ 02-2288-1883

응모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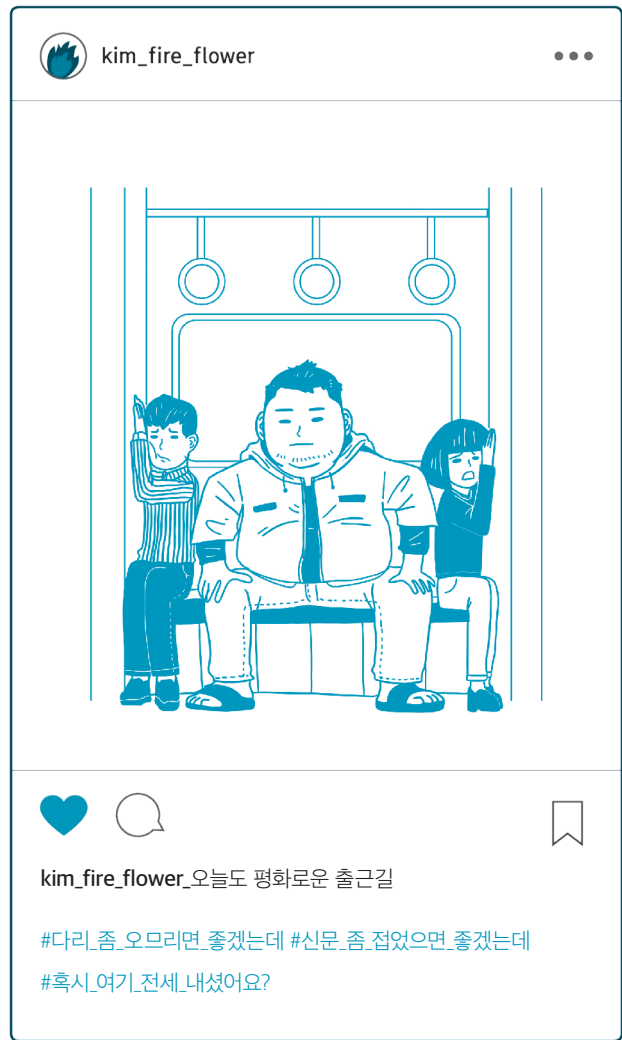


1등(1명) 드롭기 토스트기

2등(2명)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3등(3명) 기프트콘 2만원 상당

#2 대중교통 안 무개념족 수배합니다



kim_fire_flower_오늘도 평화로운 출근길

#다리_좀_오므리면_좋겠는데 #신문_좀_접었으면_좋겠는데

#혹시_여기_전세_내셨어요?

몸은 하나인데 다리를 쥌 벌리고 두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가뜰이나 좁게 붙은 좌석에서 양 겨드랑이 벌리고 스마트폰 게임하는 사람, 온갖 TMI를 남발하며 크게 통화하는 사람, 냄새 풍기며 음식 먹는 사람 등. 오늘도 평화로운 출퇴근길을 방해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하며 무시코 넘겼던 행동이라면 이제부터 정신 단단히 챙깁시다. 대중교통 안 평화를 깨트리는 안하무인 무개념족으로 지명수배 당하고 싶지 않다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체포합니다!